

김 교육감 “관심 사각지대 없어야”

확대간부회의 “코로나 위기상황 협력·연대·존중의 가치 중시” 강조



김 교육감은 1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위기가 어떤 것이든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나의 관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연대·존중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해 두 가지 사안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위기가 어떤 것이든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나의 관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연대·존중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정지역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다. 이미 입원해있던 환자들이다. 그들은 정상적인 치료가 중단되거나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하더라도 더 큰 위기에 빠져있는 일반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가족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에

서도 자신들의 일을 충실히 해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는 등교를 하지 않았지만 유치원·초등 돌봄교실은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일을 담당하게 돌봄강사들이다. 그들이 당연하게 할 일을 한거야”라고 생각하신 안된다. 그 수고에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에서는 ‘자진신고’라는 말을 쓰는데 그보다는 ‘자발적알림’ 또는 ‘자발적격리’ 등 용어부터 부드럽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분위기와 자발적으로 협력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알려 나가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법조인 첫 배출

제9회 변호사시험 4명 합격... 1명은 재판연구원 임용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가 첫 법조인 4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11일 전북대 공공인재학부에 따르면 이 학부 출신인 윤홍철(10학번), 두미영(11학번), 조주희(12학번), 조현승(13학번) 학생이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두미영 졸업생은 재판연구원에 임용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최명수(12), 김민준(13), 이웅(13), 김명훈(14), 박신영(14), 김서희(15), 신가연(15), 신민철(15), 박지원(16), 한훈근(16) 등 10명의 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해 출신 법조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 공공인재학부의 이같은 성과는 지방대육성법 제정으로 공공인재대학생들이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시점에 맞춰 로스쿨 진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결실이다.

2009년 자율전공학부로 설립된 공공인재학부는 2013년 명칭을 변경한 이후 공공정책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융·복합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학생들이 로스쿨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프리 로스쿨(Pre Law School) 프로그램과 1학년 때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고시 무한 도전 프로젝트를 등 재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해왔다. 그 결과 재학생들의 로스쿨 진학과 고시 공직 진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문경 공공인재학부장은 “로스쿨 진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LEET 대비 특강, 전북 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로법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원 및 국회 견학 변호사 및 로스쿨생 특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10명 이상의 로스쿨 합격자가 배출하여 거점국립대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 3월 개원 유치원 3곳 교명 최종 후보 선정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2021학년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유치원 (가칭)혁신유치원 외 2개원의 최종 교명 후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칭)혁신유치원(혁신도시) 교명으로는 전주새뜰유치원, (가칭)양현유치원(만성지구) 교명으로는 전주성현유치원, (가칭)세내유치원(효천지구) 교명으로는 전주푸른샘유치원 이 신설 유치원의 최종 교명 후보로 선정됐다. 교명 최종후보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됐으며, 선정된 교명은 ‘전라북도도립학교 설치조례’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비지팀(☎70-603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라북도 교육기관 노동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등 대법원 정의로운 판결 촉구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사법정의 실현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

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전라북도 교육기관 노동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은 6만여 조합원으로 이뤄진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면서, “교육기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조 할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 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팩스로 받은 ‘노조 아님’ 통보로 7년째 고통받고 있다. 34명의 교사는 해직됐고, 6만 여명의 조합원은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것. /장은성 기자

별난물건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전북과학교육원, 20일부터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김영찬)은 뒤죽박죽 창의력충전소! 2020 특별기획전 ‘별난물건박물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체험과 관람을 통해 만지고 볼 수 있는 즐거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별난물건박물관에서는 기발하고 엉뚱한 별난물건 117점을 5개 분야로 구성했다. 움직임으로 반응하는 별난 세계, 소리로 듣는 상상의 즐거움, 일상에서 찾아낸 반짝 아이디어, 영롱하고 찬란한 빛의 향연, 과학 속에 숨어있는 재치다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전북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1층 특별기획실에서 5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특별전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식을 깨는 전 세계의 엉뚱하고 기발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연주하는 티셔츠, 움직이는 그림, 비 오는 날 강아지 산책시키기, 엉덩이와 얼굴을 따로 쓰는 수건, 다리를 모아주는 가방 등 재미있고 특이한 물건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별난물건



5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6개월간 열리는 ‘별난물건박물관’ 포스터. /장은성 기자

속에 과학 원리와 창의성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고정 관념을 깨는 기발한 물건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과학적 원리도 깨닫고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까지 얻을 수 있다. 매일 6회씩(각 회당 50분 체험) 운영하는 이 특별기획전은 현장접수로 운영할 예정이다. 단체(10명 이상)의 경우, 전북과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